

수두 · 유행성이하선염(볼거리) 감염 예방 안내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질병관리청은 새학기 시작 이후 교육기관에서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(볼거리)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(볼거리)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각 가정에서는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,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꼭 병원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감염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등교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, 완치 후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처리됩니다.

1. 수두

- 수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**급성 발진성 감염병**(법정제2급감염병)
- 발진 시작 1~2일 전부터 발열과 피로감이 나타나며, 발진은 보통 두피, 얼굴 또는 몸통에 먼저 나타나고, 사지로 퍼지는 양상을 보임, 가려움을 동반하고 물집의 형태에서 농포로 바뀌고 차츰 가피(딱지)가 생김.



[수두 증상]

2. 유행성이하선염

-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**이하선 부종이 특징**적인 급성 발열성 질환 (법정제2급감염병)
- 발열, 편측 혹은 양측 이하선의 종창 및 동통이 특징

3. 수두 · 유행성 이하선염 3대 예방수칙

수두 · 유행성이하선염 3대 예방수칙

- ◇ 첫째, 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, **수두 및 MMR** (홍역·유행성이하선염·풍진) **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 완료하기**
- ◇ 둘째, 자주 손씻기, 기침 예절 지키기, 씻지 않는 손으로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, 의심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**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**
- ◇ 셋째, 발열, 발진, 침샘이 부어오르는 등 감염 의심 증상·징후가 있다면 진료를 받고 **감염력이 소실되는 시기*에 등교하기**
 - * 수두: 모든 발진 병변의 가피(딱지) 형성(발진 시작 후 최소 5일) 이후
 - * 유행성이하선염: 증상 발현 5일 이후

2023. 5. 10.

동 신 초 등 학 교 장